

장수만의 향토문화 전승 보존

군, 향토문화 연구조사·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깃질놀이 복원사업 등 추진

장수군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형성된 전통문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전승 보존사업을 진행한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보존하기 위해 총 2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수군 향토문화 연구조사,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사업, 장수군 깃질놀이 복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장수군에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무형유산인 장수 깃질놀이의 복원·전승 사업과 장수농악의 고유성을 전승하는 1시간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사업을 통해 우리 군만이 가진 무형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화합을 위한 문화축제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선 전기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장수향교를 중심으로 한 장수향교 제례봉



장수군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형성된 전통문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전승 보존사업을 진행한다.(사진은 깃질놀이 모습)

행, 유립전통문화 시연(기요연), 향교 서원문화재 활용사업과 관내 지역유교문화를 이어가는 서원 제례봉행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만의 고유 향토문화 전승·보존활동과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추진하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장수군민의 문화생활 발전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과수 화상병 방제 총력

917농가에 작물보호제 공급

무주군이 관내 과수(사과·배) 농가에 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과수 화상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화상병 약제 무상공급은 과수 화상병의 지역유입을 막아 사과산지의 병성을 지키고 지역 과수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8,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917농가에 작물보호제 공급을 완료했다. 고도차가 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각 읍면 방제단을 통한 공동방제



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 황재창 팀장은 "화상병은 사과·배의 잎이나 과실 등이 화상을 입은 것과는 달리 각 읍면 방제단을 통한 공동방제

전국에서 744농가 394.4ha가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도 확산세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화상병의 창궐을 막기 위해 농가들과 예방법 등을 공유하고 약제가 재배 살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는 화상병 사전 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병해충 총 예찰·방제단을 구성해 화상병을 비롯한 돌발병해충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 중으로, 빈틈없는 방제로 과수화상병 발생 없는 청정무주의 명성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공동육아나눔터 영유아·양육 가정 대상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이 영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진행이 아동들의 상상력 배양과 성장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주군은 무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무주군 지역 내 영유아 및 4세~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다양한 육아 경험과 육아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5~7세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목요일 과학체험 키트를 활용한 신기한 체험놀이 '호기심 과학'을 마련한다.

또 6세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체험형 미술 프로그램 과학 및 미술관련 프로그램인 '미술아 놀자'를 진행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방문 신청을 통해 육아맘들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공

간 이용 및 장난감, 도서대여지원 등 상시프로그램을 평일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김미경 팀장은 "이러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육아정보 공유와 육아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지역사회내 자녀돌봄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

미세먼지·대기오염 저감 위해 내달 2일까지 신청

무주군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이륜차 36대(경형기준)를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5,400만원(국비 2,700만원 포함)을 확보하고 1대당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최초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이며, 개인 또는 법인과 단체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당 1대로 제한한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은 오는 4월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량 출고·등록·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절차는 구매자가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제공해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무주군에 신청한다.

보조금 지원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지원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 출고 후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된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산 우수 농축임산물 널리 알린다

aT 등 관계자 초청 농축임산물·가공식품 등 판매전략 간담회

진안군은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거래소 운영본부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진안산 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 등 판매전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안군과 농협, 진안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유통관계자와 관내 생산자단체 및 가공식품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먼저 진안군 농업현황과 농·특산물 소개를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aT공사 사이버거래 시스템을 활용한 B2B 판매 및 인터넷 소싱몰(쿠방, 네이버, 11번가 등) 연계 판매사업, aT공사 생방송 활용 농산물 및 가공식품 홍보 및 소비자 직판과 각종 정책 지원 사업 등의 소개로 이어졌

다. 특히 관내 토마토, 수박, 사과 등의 생산자 단체와 한과, 마이산김치 등 가공식품 업체 대표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과 방송 등 홈쇼핑 판매 시스템 유통관로 개척을 위한 이번 간담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aT 협력사업에 대한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aT와의 협력이 우리 진안의 우수 농축임산물을 널리 알리고 비대면 방식 도시권 판로 개척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군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희망 나눔캠페인 우수 지자체 선정

진안군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일 군청에서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 박용훈 사무처장 및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서 총 1억 8,000만원을 모금하여 전년 대비 167%를 달성해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됐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 인센티브로 확보된 2,000만원의 사업비는 주민 중심 마을복지 체계구축을 위한 주민 참여형 교육과 마을복지계획 수립 컨설팅 비용, 위기가구를 위한 생활물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은 진안군민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인 결과"라며 "군민과 함께 나눔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진안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전자도서관 개관

진안군은 23일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군민에게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도서를 대여해 도서구비 공간미련 부담을 덜고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군비 3,600여만원을 들여 전자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타 지역 거주자라도 진안군에 직장이 있으면 가능)은 군청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에서 진안군 전자도서관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후 스마트폰과 PC에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자책(e-book) 1,698종, 4,956권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오디오북(TTS)으로도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다. 도서 대출은 1인당 5권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5일이고, 대출기간이 지나면 자동반납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